



전 문 병 원 탐 방 천안 속편한내과

## 소화기내과 전문의 3인의 명품 의료서비스를 즐겨라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 속편한내과는 올 8월에 확장이전을 했다. 천안 속편한내과는 2003년 2월 순천향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이던 이문호 원장이 개원한 병원으로 5년간 천안에서는 명실공히 첫째가는 소화기내과 전문병원이었다. 하지만 천안 속편한내과의 이문호 원장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천안의 유명한 내과인 서울연세내과의 박영환 원장과 손정민 원장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도약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문호, 박영환, 손정민 이들 3명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뭉친 이유와 천안 속편한내과의 진화하는 서비스를 만나보자.

글 \_ 김윤정 기자 | 사진 \_ 김상민 기자

## 숙련된 경험과 젊은 열정이 환자의 신뢰를 빛낸다

천안 속편한내과는 200여 평의 큰 규모와 천안의 중심가인 신부동에 자리잡고 있어 어느 개원내과와는 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병원이다. 그리고 천안 속편안내과의 심장부인 의료진의 면모를 보면 왜 천안에서 인기있는 병원, 유명한 병원인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 무한믿음의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 개성만점, 믿음 주는 3명의 주치의

병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의사'이다. 천안 속편한내과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고민은 일부분 털어버릴 수 있다. 천안 속편안내과의 문을 처음 연 이문호 원장은 13년간 순천향대학교 소화기내과 정교수이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내과과장을 지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소화기내과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

같은 실력을 지닌 이문호 원장이 개원을 했으니 환자들의 문전성시를 이룬 것은 어찌먼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번에 함께 공동 개원한 박영훈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손정민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각각 졸업한 후 둘 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2004년 천안에 서울연세내과를 개원해 환자들에게 인기와 신뢰를 받았다.

이문호 원장은 오랜 경험으로 노인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박영환 원장은 부드러운 말투와 친절한 설명으로 여성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손정민 원장은 핵심을 찌르는 깔끔한 진료로 젊은 환자들이 선호한다. 이처럼 천안 속편한내과는 하나의 색깔에 획일화된 병원이 아니라 믿음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병원이다.





200여 평의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 대기실



CT까지 갖춘 건강검진 시스템

### CT, PACS까지 갖춘 의료시스템

천안 속편한내과는 3명의 원장이 뭉치면서 시스템도 한 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전에도 소화기내과 전문 의원답게 위, 대장 내시경을 비롯 기본 건강검진이 가능했지만 CT 등의 최신 장비는 개인 병원에서 갖추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셋이 뭉쳐 공동 투자로 CT와 Full PACS 시스템을 갖춰 환자들이 원하는 검사를 100%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진료가 가능한 것이 천안 속편한내과의 장점이다.

박영환 원장은 “검사를 하다 보면 CT가 필요한 검사들이 있지만 인근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의뢰해야 했습니다. CT 등의 장비는 일반 개인 병원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장비지만 천안 속편한내과와 서울연세내과가 합치면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며 공동 개원으로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 속편한내과는 내시경 장비도 보급형이 아닌 대학병원급으로 갖추었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건강검진결과 상담까지 가능해져 속편한내과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환자를 따라가는 무한 책임진료

천안 속편한내과의 진료스타일은 대학병원시스템과 비슷하다. 이문호 원장은 “개원을 해서도 되도록이면 대학교수 때 환자를 돌보는 방식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개원당시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절제

술했을 때는 환자와 함께 병원에서 밤을 새며 환자 상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인근 중소병원에 입원의뢰를 하고 주치의로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하고 있습니다”며 남다른 환자 진료시스템을 설명했다.

서산 등 먼 곳에서 찾아온 환자 상태가 안 좋을 때 약만 처방해서 그냥 되돌려 보내면 마음이 편치 않다며 꼭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한다.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과 외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개원가에서 어려운 진료시스템을 천안 속편한내과에서는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환자에 대한 무한 책임 진료는 환자들이 천안 속편한내과를 계속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부러워하는 직장 만들 터

천안 속편한내과는 3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5년 만에 현재는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성장했다. 의료분야 직장은 다른 직장과는 달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종이다. 이문호 원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천안 속편한내과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천안 속편한내과의 3명의 원장은 직원들에게 진료분야와 환자상담에 대해 틈틈히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외부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속편한내과의 부설

# “MHI검진센터에서 건강 위험요소까지 관리하라”

천안 속편한내과는 검진만을 전문으로 하는 ‘MHI검진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강은 예방과 조기 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알찬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 편안한 검사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천안 속편한내과는 1층은 진료를 위한 공간이 있고 2층에는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위한 검진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진료를 받는 사람과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섞여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한 곳에서 순서대로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금식과 검사 전 준비로 긴장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 받고 싶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 맞춤검사에 의사의 여유와 협진이 필요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충분한 상담과 문진을 통해 맞춤 검사를 해야 한다. 박영환 원장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사를 찾으려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할 때 시간에 쫓기면 구석구석 보지 않게 되어 제대로 검사를 받으려면 의사의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천안 속편한내과가 공동개원을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혼자서 진료를 보면서 검사

도 하고 용종절제술과 같은 시간이 걸리는 시술까지 할 때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여유가 없었다고 이문호 원장은 말했다. 하지만 이제 3명의 의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위,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로 환자의 몸 상태를 살살이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또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검사 중 응급상황이나 검사결과 이상부위가 발견되면 함께 대처하고 바로 모여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치의 3명에게 검사를 받는 것과 같다.

### 검사 후 AS까지 책임지는 병원

천안 속편한내과가 별도로 MHI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1회성, 형식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건강의 위험요소까지 발견하고 이를 관리해주기 위해서이다. 천안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 직장인 검진 등 단체 검진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찍어내듯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검사 후에는 모두 잊어 버린다. 하지만 천안 속편한내과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검진은 거부하고 위험요인까지 발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추후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다.

2층에 별도로 마련된 건강검진 센터



# MHI 검진센터 사진으로 엿보기



① 접수/상담 : 가족력, 질환 등과 관련된 문진과 상담으로 필요한 검진프로그램을 선정한다.



② 혈액 및 소변검사 : 혈액과 소변검사로 우리 몸의 당뇨, 콜레스테롤 정도, 빈혈, 내분비기능, 감염 여부, 면역력, 신장기능, 간기능 등을 체크할 수 있다.



③ 심전도, 안과, 청력검사 : 심장, 눈, 귀의 기본적인 기능을 검사한다.



⑥ 위, 대장 내시경 검사 : 위장관 기능을 검사하고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다. 대장내시경은 검사 2~3일전부터 씨앗을 먹지 않고 장세척제를 검사 전날 먹어 장을 완전히 비운다.



④ 흉부 X-선 검사, 골밀도 검사 : 심장의 크기, 심장의 이상유무, 폐의 상태를 보는 검사이다. 검사시 속옷까지 모두 벗고 목걸이도 빼야 하고 충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찍어야 한다. 골밀도 검사는 뼈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검사로 여성은 30세 이후 1~2년에 한 번 씩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⑤ CT 검사 : 조기 암의 발견과 악성 종양과 양성종양의 구별에 필요한 검사로 뇌, 복부 등 신체의 장기의 단면을 볼 수 있어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된다. 특히 64채널 MD CT는 최신 장비로 기존의 CT보다 보다 정밀한 3차원 영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초고속 촬영으로 검사시간이 짧아 노인, 소아 등 숨을 오래 참기 힘든 사람도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 초음파 검사 : 간, 담낭, 췌장, 신장, 갑상선 등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 “지켜보자는 말도 믿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문호 원장은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로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찾아오는 사람이다. 13년간의 대학교수로 쌓은 임상경험, 개원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이 원장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이에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의 진료철학이 환자의 마음에 전달되어 천안 속편한내과가 제2의 도약을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서울 연세내과의 박영환 원장, 손정민 원장과 함께 하게 된 계기와 의사로서의 소신을 들어본다.

## 환자와 나 자신을 위한 공동개원

이 원장이 2003년 개원하고 5년간 천안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다른 개원가에서 앓다 튀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다. 그 명성에 걸맞게 하루 200여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찾아오니 환자들은 그만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문호 원장은 화장실도 가지 못할 만큼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이렇게 바쁜 이문호 원장에게 이웃에 개원한 손정민 원장과 박영환 원장의 함께하자는 제안은 마른 땅에 단비 같은 말이었다. 이 원장은 평소에도 공동개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박 원장, 손 원장과는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등 가까이에서 지켜봐 믿을 수 있어 그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원장은 “공동개원을 하면 그만큼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줄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다 더 꼼꼼한 진료를 볼 수 있어 환자에게도 좋고 나 자신도 피로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라고 말한다.

## 환자가 마련해 준 병원 자리

이문호 원장에게는 20년 넘게 찾아오는 단골환자들이 수두룩하다. 환자들 중에는 대를 이어 이문호 원장에게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대학교병원 교수시절부터 진료하던 환자들이 개원을 해서도 찾아와 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이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진료를 본 것이 저를 찾게 한 것 같습니다”며 진료철학을 밝혔다.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는 인근 병원에 입원을 의뢰해 아침 7시에 회진을 하고 오후에 다시 입원실을 찾는 등 끝까지 책임지는 진료를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덕택에 지금의 병원자리도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이었으나 건물주인 이 원장의 단골고객이 고마움의 표시로 선뜻 내주었다고 한다. 이 원장은 “이번 확장을 준비하면서 고객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한 것이 보람되었습니다.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누렸습니다. 앞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설명과 진료로 ‘지켜보자’는 말에도 믿음을 살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며 소박한 의사의 꿈을 말했다.

# “소화기내과는 함께 해야 제대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박영환 원장은 소화기내과는 혼자서는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없는 복잡한 진료과라고 말한다. 소화기내과의 진료와 검사, 시술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진행할 경우 그만큼 문제가 생길 틈이 많다는 것이 박 원장의 생각이다. 그 때문에 처음 개원할 때부터 손정민 원장과 함께 공동개원을 했고 이번에 속편한내과로 새롭게 도약하면서 공동개원을 선택했다.

## 존경과 배려, 경험과 열정을 교환

박 원장은 손정민 원장과 함께 ‘서울연세내과’를 5년 가까이 운영해왔다. 이번 공동개원을하면서 이 이름을 버리고 이문호 원장의 속편한내과로 이름을 바꿨다. “이문호 원장님은 평소 존경하던 분입니다.

이문호 원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만을 위한 다른 병원의 공동개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연세내과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환자들이 나와 손정민 원장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고 말한다. 천안 속편한내과의 공동개원은 다른 공동개원과는 달리 연배차이가 많이 난다. 선배라기 보다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깝다. 선배에 대한 존경, 그리고 후배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병원이다. 또한 소화기내과의 권위자인 이문호 원장의 수많은 경험과 30대의 열정과 에너지가 서로 조화를 이룬 병원으로 환자들이 보다 믿을 수 있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환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사

박영환 원장은 호감가는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와 말투만으로 그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내과 질환들은 환자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기 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환자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며 환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환자의 증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소한 증상도 표현할 수 있는 진료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박 원장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39세 여성환자



박영환 원장

가 소화장애를 호소해 내시경을 했으나 정상으로 나왔지만 증상은 지속되었고 이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에 작은 병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밀검사서에서 췌장암이 나왔다고 한다. 박 원장은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환자의 이야기를 5분이든 20분이든 다 들어줍니다. 한국에서는 힘들겠지만 우리 병원은 의사가 3명이나 있어 보다 여유로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고 말한다.

# “소화기내과 전문병원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손정민 원장은 이번 공동개원에서 가장 막내의사이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선배의사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이문호 원장과 박영환 원장 두 분다 편하게 대해 주고 환자를 진료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서로의 스타일과 영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손정민 원장은 공동개원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밝힌다. 손정민 원장으로부터 공동개원의 의의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공동개원으로 Win-Win 효과

손정민 원장은 이문호 원장과 병원을 합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3명의 원장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보다 환자들의 선택을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진료를 볼 때도 전보다 여유롭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좀 까다로운 환자를 진료하여 시간이 지체되어도 밖에서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조정해주고 이문호 원장님과 박영환 원장님 두 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 안심하고 진료를 봅니다”며 속편한내과에서는 의사도 환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여유의 근간에는 두 원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 손정민 원장은 두 원장에게 배울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동료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한층 자신감 있게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소화기내과 전국네트워크인 속편한내과 시스템의 지원이 있어 진료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공동개원을 통해 얻은 점이라고 말한다.

## 1st 소화기내과 전문병원 만들고파

천안 속편한내과는 지금도 일반 개인병원의 소화기내과와 비교하면 의료진을 비롯한 장비, 시스템들이 한 두 단계 상위 그레이드로 갖춰져 있다. 하지만 손 원장은 “새롭게 문을 연지 아직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전 병원과의 OCS 연동 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소화기내과 전문병원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병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며 비전을 밝혔다.

천안 속편한내과는 첫째가는 소화기내과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 환자들의 의사사항을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료시스템과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을 늘려 1:1 맞춤 진료 및 검사, 정확한 진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의료진의 확보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대규모 직장인 검진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손 원장은 천안 속편한내과는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발, 두 발 환자 마음속으로, 환자들이 원하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말했다.

광고